일본의 커피역사 및 카페

 일본어학과 21902047도현준

1. 일본 커피의 역사

일본에 커피가 전래된 것은 도쿠가와 쓰나요시의 무렵,나가사키의 데지마에서 네덜란드에 의해 처음으로 들어온 것으로 되어있다. 대전에는 단맛하고 맛전체를 견디지 못하고 일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 기록되어있다. 문명 개화 와 함께 서양 문화가 유입 나가사키, 하코다테, 요코하마 등의 개항 지역을 중심으로 서양 음식점이 개점하게되며 메뉴의 일부로 커피가 일반 서민의 눈에 닿게되었다.게이오 2년(1866년)에 수입 관세를 결정 공식적으로 커피가 수입된 1877년(메이지10년)무렵이 되면서 커피를 상품으로 취급 지반이 완성되었다. 시모 오카가 센소지 경내에 개설한 ‘유화 찻집’을 비롯해 고베 모토마치의 ‘[放香堂](https://ja.wikipedia.org/wiki/%C3%A6%C2%94%C2%BE%C3%A9%C2%A6%C2%99%C3%A5%C2%A0%C2%82%22%20%5Co%20%22%E6%94%BE%E9%A6%99%E5%A0%82)’ 개점은 에도 말기의 연호 연간·현재도 고베시 주 오구 모토마치 거리에 현존하고 있다.

1. 다방 보다 빨랐다 카페

현재 카페 붐에서 ‘다방’ 이 오래된 '카페'가 새롭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커피를 제공하고 사람들의 사교장이 된 것은 당시 "카페"이고 시설에서 ‘다방’ 보다 인기가 더 빨랐습니다. 이것은 ‘도쿄미술학교’ 출신의 마츠야마 쇼 조는 파리의 카페처럼 화가들과 예술 설명을 할수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다고 친구들과 협력하여 개업 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가게는 ‘카페 쁘 렝땅’ 라고 몇몇 문화인이 모이는 살롱으로 크게 발전하고 그 후에는 긴자를 중심으로 속속 카페의 이름이 붙은 가게가 개업합니다.

1. 양분화 하는 카페 와 다방

1925 년 (다이쇼 14 년) 무렵에는 관동 대지진의 부흥과 함께 카페가 급증하고 동시에 가게의 특징도 분화해 나가는게 됩니다. 고객의 대화 상대가 되는 서비스와 주류를 제공하는 「카페」에서 점차 바와 카바레 같은 형태가 되는 가게도 등장해, 마침내 1929 년 (1929 년)에 단속령이 발포됩니다. 이후 카페는 격감하고 그와는 반대로 커피와 간식을 제공하는 가게는 "다방"또는 "순수한 찻집"이라고 불리는 가게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분위기가 카페 문화의 영향으로 1937 년 (쇼와 12 년)에는 커피콩 수입량도 절정 있지만, 그 이듬해 1938 년 (쇼와 13 년)에는 전시 체제가 깔려 수입 규제가 시작됩니다.

1. 다방의 다양화와 전성기

제 2 차 세계 대전이 종전후 수입이 재개된 1950 년 (쇼와 25 년) 이후에는 다시 서민들이 커피를 요구하며 다방에 다니게 됩니다. 전쟁후의 혼란도 점차 진정이 될때부터 오너의 취미가 강하게 반영됐다 다방이 늘어나면서 특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취급하는 "음악 다방 '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음악 카페의 선구자 적인 존재는 1926 년 (쇼와 원년)의 오픈에서 현재도 영업을 계속하는 ’명곡 끽다 사자’ 입니다 만, 기타 명곡 카페, 가성 카페, 재즈 카페, 샹송 카페, 록 카페 등은 1950 년대 와 1960 년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또한 1970년대에 카페 문화가 발전한 나고야시에서는 만화방이 탄생했습니다.

1. 체인점의 등장

"다방"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취미를 공유하는 장소로서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끓이는 커피기구 및 음악 기기 등이 저렴하고 손에 들어가는 시대가 되고 나서 사람들은 다방에 또 다른 역할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요구에 부응 하듯이, 1980 년 도토루 커피 숍의 1 호점 이 하라주쿠에 오픈했습니다. 저렴하고 간단하게 커피가 만들어지는 셀프 스타일이 바쁜 나날을 보내는 현대인의 지지를 모으고, 도토루 커피는 그 후에도 체인점을 늘려 현재에 이르고있다. 그리고, 뒤쫓는 같이 외국계 체인점의 진출, 2000년 무렵의 카페 붐에서 비롯된 새로운 카페의 다양화가 진행되어, 현재 일본에서는 원래의 의미였던 다방은 적어지게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옛날부터 변함없이 지역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다방은 지금도 확실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1. 다방 및 카페 의 종류

순 찻집: 주류 제공 및 성적 서비스 등을 실시하지 않는 순수하게 음식을 즐기는 다방 .
지금의 감각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여자 웨이터가 옆에 앉아 대화 상대를 하거나 아슬아슬한 의상을 입고 바닥에 서있는 '카페'가 전성기였던 시절에는 커피 만을 즐기는 업태는 "순수함"을 거절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전후에는 후술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특화 한 다방도 늘면서 그들 모두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서비스를 하시는 분, 커피의 맛에 대한 고집은 대체로 강하고, 현재에 계승되는 일본의 커피 문화를 견인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구별할 이유도 없어지고, 신규 창업을 시키는 곳은 없게 되었지만, 당시부터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포는 일종의 자부심으로 지금도 순수 카페라고 자칭하는 가게가 많다는 것 같습니다.

재즈 카페: 전쟁후에 일대 붐을 일으킨 작풍.

현재 재즈 바 등과 같이 무대에서 라이브 공연이 펼쳐지는 형태의 가게가 많아 정교한 무대 특수 효과와 거대한 홀 등 지금의 감각으로 말하는 다방과는 동떨어진 시설을 가지고 했습니다. 1960 년대에는 젊은 남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은 「긴자 ACB (아시 베)」나 「등불」 등 도심의 유명한 상점이 되면 연일 이름있는 음악가가 출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슷한 양식의 것으로는 미와 아키히로 등을 배출 한 것으로 유명한 '은 파리'등의 샹송 카페 나중에 디스코 클럽의 주행이 락 카페, 고고 카페 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형 홀에서 연일음악 하는 가게는 없습니다 만, CD 나 레코드 등의 음원에서 재즈를 흘리는 것을 판매하는 카페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라오케 카페: 열린 공간에서 노래방이 있는 찻집.
노래방과는 달리 점원이나 다른 손님이 자신의 노래를 들어 준다는 매력, 특히 노인 이용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음식 주문 외에 가라오케 한 곡 당 얼마라는 요금 형태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고, 저녁 이후에는 주류 제공하는 점포도 있습니다. 원래는 가성 카페의 전환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게도 많아, 이용자의 감소에 따라 점포 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지금도 일부 팬들로부터 꾸준한 지지를 받는 형태의 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 카페: 테이블이 게임의 케이스로되어 있으며, 식사와 동시에 게임을 즐길 수있는 카페. 1970 년대 후반의 '스페이스 인베이더'의 폭발적인 히트에 의해 한때 주목을 끌었다.
입장료와 음식요금을 지불하여 게임을 할 수있는 것은 아닌 일반 음식 요금과 별도로 1 게임 100 엔 정도의 게임 이용료가 있는곳이 지금의 감각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성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돈을 회수하여야될 정도의 대성황이었던 것입니다만,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의 보급 등으로 시원스럽게 붐이 종료 지금은 거의 멸종 버렸습니다.

만화방: 대량의 만화를 늘어 놓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형태의 다방.

1980 년대에 나고야시에서 창업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는 오픈 석 점원이 주문을 받으러 오는 보통 다방 형식이었습니다. 주문한데 대해 어떤 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장시간 있다면 추가 주문을 해야 대신 입장료 및 시간 당 요금이 없습니다. 현재는 입장료 식의 만화 카페 나 인터넷 카페 등에 바뀌고 있는 가게가 거의 같습니다.

1. 일본인이 생각하는 한국 카페
2. 한국 카페 어쨌든 예쁘다.

한국에서는 인테리어나 분위기가 예쁜 카페들이 대부분입니다 테이블마다 꽃병이 놓여있고,조명의 형태가 정교하거나 거울이 놓여져 있는 카페가 많다. 일본에서는 장식이나 그릇 등의 비쥬얼에 대한 집착이 많은 가게는 ‘한국식’ 이라는 말로 소개가 되는 경우가 많다.

1. 한국 카페는 메뉴가 다양하다.

한국의 카페는 메뉴가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의 카페에도 메뉴가 많이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카페 들이 ‘비주얼 적으로도 맛으로도 종류가 풍부하다" 라는 것입니다.

1. 카페에서 공부는 보통

한국에서는 까페에서 공부하는 것을 ‘카공’ 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공부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정상입니다. 일본이라고 하면 “장시간 공부 거절” 이라든지 공부하기 어려운 분위기의 까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패밀리 레스토랑 공부’ 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패밀리 레스토랑’은 높은 이미지가 있어 공부 장소 로서의 인식은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패밀리 레스토랑 자체도 잘 보이지가 않고 패밀리 레스토랑 보다는 식당이 많습니다.

1. 카페 관련 신조어가 많다

지금까지 소개한 바와 같이, 카페 문화가 발달하고 있는 한국. 그런 한국에는 카페 관련 신조어가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카공(카페 공부),아아(아이스 아메리카노),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아바라(아이스 바닐라 라떼) 등 일본에는 없는 신조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일본 카페에 대해 외국인의 어떻게 생각 할까?

1.편리한 와이파이가 없다는 것이다.

유럽국가나 가까운 한국에도 무료 와이파이가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도 많아지는 것 같지만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일본은 통신에서 개발이라고 느껴 버리는 것 같다.

2.억지로 작은 자리를 둔 곳이 많다.

 작은 자리를 둔 곳이 많다 보니 옆테이블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들릴 정도로 개인정보가 없습니다.

3.조금 비싸고, 커피의 양이 작다.

4.모든 곳에서 금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국가들을 보면 실내에서는 금연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모든 실내에 금연을 하고있지 않아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고 있다.